

# 30년 공직생활 다음은 출판경영, 문학에 대한 열정이 만든 별난 삶의 궤적



시인이자 소설가인 나승빈 씨는 '평범'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힘든 기벽이나 행동으로 시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별난 인물은 아니다. 남들과는 다른 자기철학과 자기고집이 평범이라는 대목에서 그를 비켜서게 하는데, 그것이 어지간히 지독하다 싶다. 오랜 공직생활 가운데서도 한시도 펜을 놓은 적이 없었고, 공직생활을 정리하고서는 문학이 좋고, 어려운 처지의 문인들을 돕고 싶어 덜컥 출판사를 차리기까지 했다. 문학에 대한 열정이 삶에 대한 열정에 다름 아니다. 목적의식과 성찰 없이 하루하루 일력을 넘기는 평범 씨들이라면 그만의 독특한 궤적을 주목해 보아도 좋겠다.

공직생활 30여 년, 문학은 한시도 잊지 못한 '정인'인

국가정보원에서 이사관을 끝으로 퇴직하기까지 공직생활에 바친 세월만 30년. 그만큼의 세월이 얼굴에 자취로 남았지만, 그가 정인으로서 삼은 문학만은 날로 젊어갔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국민의 몫을 먼저 생각하는 공인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자부심을 갖게 했다"는 그는 길어져도 좋을 공직생활의 소회를 접고 이내 말머리를 돌렸다.

"공무원 사회는 직업적 관행과 업무의 성격상 정서적으로 건조해 지기가 쉽고 유연성이 결여되기 쉽습니다. 이런 취약요소를 개선하는데 문학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각 행정부처내 문학동아리가 운영되긴 하지만, 대부분 개인 차원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쉽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다 문학 덕이었지요."

공직생활 가운데 그가 거둔 문학적 성취를 짚어보자면, '보람'이란 말이 의례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문학세계> 소

설 등단, <천주교문학> 시 등단, 콩트집 <평양아리랑>과 시집 <가슴의 바다> <님의 자리> 출간 등 그는 특수하고도 긴장된 국가정보원 업무 속에서도 굼직한 이력을 더해 갔다. 인상적인 것은 '형이상학과 시(Metaphysical Poetry)'라는 나름의 문학세계를 확정하고 치열하게 밀어붙인 문학적 뚝심이다.

### 문학·철학·사상 어우러진 아포리즘 선사

"형이상학과 시는 감상이 아닌 사상성에 기인한 분석과 해부, 기발한 상상력을 통한 이미지들의 충격적인 대비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철학, 종교, 신학, 과학 등 비관습적 이미지가 주로 차용되지요. 이런 저런 글을 써오면서 언제부터인지 형이상학과 시의 기법과 특성이 제 문학적 체질과 취향에 맞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형식도 문학성과 철학적, 그리고 사상이 한데 어우러진 아포리즘과 명상시 형태를 갖고자 하지요."

최근 그가 펴낸 <미소로 호흡하고 미소로 만져라>는 형이상학과 시에 대한 오랜 고민의 결과물이다. "인생은 살아갈 때는

한 편의 장편소설 같지만, 살고 나면 한 편의 짧은 시와 같다”, “아  
은 처음에는 빵을 얻기 위해 악을 저지르지만, 빵을 얻고 나면 악  
을 위해 악을 저지른다” 등 삶에 대한 사유가 녹진한 280수의 아  
포리즘을 곱씹는 맛은 남다르다.

“오랜 시간 틈틈이 메모해 둔 것을 정리했습니다. 구성의 묘미를  
더해 보려 각기 주제별 아포리즘 끝에 명상시 24편을 나누어 수록했지요.  
아포리즘을 즐겨 쓴 몽테뉴나 파스칼은 문인이자 철학자며, 사상이었습니  
다. 이 세 가지 능력을 고루 갖추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아포리즘을 얻을 수  
없지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에게 윤택한 삶은 약속  
처럼 주어지는 것. 그는 “책을 읽은 독자들이 아포리즘 속에 담긴  
삶의 비밀을 깨닫고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한다”는 소박  
한 바람을 말한다.

### 생계 힘든 문인 돕고자 출판사 차려

그는 지난 3월 나온문화사라는 이름의 출판사를 차렸다. 불황의  
대표격이라는 출판사를 차렸다는 것이 의아하기도 하지만, 출판  
경영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지 못한 자의 순진하고도 무모한 모험  
은 결코 아니다. 책다운 책 한 권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돈이 얼마  
인지, 유통 및 마케팅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다.

“문인들의 생활고는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비 출  
판으로 자신의 책을 내는 문인이 부지기수이고, 설령 운이 좋아 책 한쇄가  
독자들의 손에 쥐어졌다 해도 100만 원이 못 되는 돈을 벌 뿐입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완성한 결과물에 대한 별이 그 것뿐이라니 동업자로서 안  
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존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작품을 쓰는 작가들을 발굴  
해 격려하고 싶어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그는 문인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언론이 좋은 역  
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을 잇는다. 실력 있는 무명작가들을 발굴  
하는 데 일간지 북섹션은 더 신경을 써야 하며, 책광고가 상대적  
으로 싸긴 하지만, 중소출판사들도 부담 없이 광고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도 있어야 한다. 책값에 대해서도 그는 단호한 입장  
이다. 정신적 허기를 오래도록 충족시켜줄 책값이 여타의 유희 및  
문화상품비에 비해 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단다. 제대로 된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투입되는 노력을 생각하면, 출판사를 살리  
고 작가를 살릴 현실적인 책값이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  
조한다.

### 원숙한 사유 위해 신학공부 … 영육혼에 ‘가슴’ 더해져야 인간

문학에 대한 열정이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견디게 했지만, 출판경  
영이라는 일에도 도전하게 했다. 공직자, 경영자, 작가 등 그간 경  
험해 본 것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일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공  
직자와 경영자는 밥을 얻기 위해 한 일, 밥을 얻지 못한다면 공직  
자와 경영자를 무슨 낙으로 할 것인가”라는 현답으로 에둘렀다.

“세계 문학은 틈 없는 사회의 치열한 경쟁공간에서 위안을 받는

일종의 휴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아니었다면 제가 감히 작가라는 이  
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간신히 하루 쉬는 휴일이면  
아내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었지요. 그리고 아내는 제가 쓴 작품을  
가장 먼저 읽어주고 평해주는 고급 독자이자 평론가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  
주었습니다. 작가에게 이보다 더 큰 지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늘  
빛진 마음으로 살고 있지요.”

한편 그는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신학원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 신학공부의 뜻에는 사실 의도한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 “또?”라는 말이 나올 법한데, 그 역시 자기문학에 대한 고집  
때문. “형이상학과 시에 대한 원숙한 사유를 얻기 위해서는 깊은  
신학공부가 따라야 한다”는 그는 “존 던의 시가 그랬듯 종교성, 철  
학적, 나중에는 사상성까지 곁들여진 시를 쓸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한편 “인간은 가슴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  
다”는 자신만의 철학을 형이상학과 시 속에 부지런히 개진하고도  
있는데, ‘가슴 존재론’ 철학 역시 명확하게 정리해 볼 계획도 갖고  
있다.

“영혼과 육신과 정신으로 인간존재를 나누는데, 저는 거기에 가  
슴을 더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머리에서 본능적인 생존의식을  
부여받지만,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이유는 가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깨달음, 신앙 등 인생의 본질적인 요소는 모두 가슴으로부터 비롯된 것입  
니다.”

가슴존재론, 낯설기는 하지만 충분히 긍정할 만한 철학이  
다. 그의 문학이 머물고 있는 자리 역시 가슴이라면, 삶 이상으로  
바치는 열정의 이유는 충분히 설명된다. “가슴을 잃어버리면 인간  
존재의 의미는 사라진다”고 그는 말하지 않겠는가. **이문**

취재 박동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